

技法은 一式의 그릇들을 겹쳐 놓았을 때 자기 그릇 안바닥과의 마찰이나 그릇사이의 공간을 없이해서 管理에 간편하도록 考察된 것이라고 생각된다. 高麗時代의 銅器나 磁器에 나타난 이러한 「바릿대」 樣式은 아마도 古代의 木器, 漆器等 佛器에서 이에 先行에는 古格이 있었던 것으로 보여지며 지금도 佛刹에서 흔히 볼 수 있는 李朝時代의 木器 「바릿대」

承이라고 생각된다. 李洪根氏의 이 靑磁 바릿대는 初期高麗靑磁에서 흔히 볼 수 있는 耐火性흙으로 된 흙비질논의 혼적과 굽언저리의 剝釉部分에서 나타난 赭呈色, 그리고 精緻하지 못한 釉胎 등으로 보아 靑磁로서의 古格을 알 수 있을 뿐더러 바릿대양식을 잘 갖추고 있다. 그리고 그릇의 外邊에 銘記된 「癸丑年造上 大聖持鉢」의 九字는 언뜻보면 黑象嵌처럼 보이지만 이것은 黑土로서 筆記한 것이며 字體도 매우 高古한 맛이 있을 뿐더러 그 黑色도 淋漓하다고 하리만치 發色이 좋다.

그릇의 안바닥에는 마무리작기에서 생기는 매우 작은 圓廓이 나타나 있으며 鉢口에서 一·五cm 部位에 陰刻線을 한줄 돌렸고 이 線條部位로

부터는 그릇의 전이 거의 垂直으로 세워져 있다. 釉藥은 灰靑에 가깝고 여기에 약간 酸化된 黃綠과 變色이 나타나 있고 어떤 部分에서는 早期靑磁特有的 깊은 맛이 감도는 灰黑色地帶로 보인다. 인 곳도 있다.

이러한 釉胎와 樣式에 빚추어 이 銘記의 癸丑이라 함은 아마도 高麗仁宗十一年(一一三三)과 文宗二十七年(一〇七三)의 두 癸丑中의 하나였던 것으로 짐작된다. 특히 銘記가 象嵌이 아니고 黑土로 된 筆記라는 點으로 보아 象嵌流行以前이었다고 짐작할 수 있으므로 해서 前記條件들과 함께 이것을 文宗二十七年 癸丑(一〇七三)으로 올려보는 것이 옳지 않음이 아니다. 그 理由의 하나로서는 仁宗癸丑 무렵에는 이미 象嵌技法이 시작되어 이러한 記銘에는 象嵌을 했을 가능성이 클뿐더러 高麗靑磁가 그 精絶을 자랑하던 全盛期였으므로 적어도 이러한 佛前寶鉢을 造上함에 있어서는 이렇게 소홀한 製作을 했을리가 없다고 생각되는 것이다.

이렇게 推斷하면 이것은 筆者가 앞서 本誌에 發表한 己丑靑磁瓶보다(註)三十六年쯤 앞서는 資料로서 初期高麗靑磁編年史料로서는 자못 注目만한 遺品이 아닌가 한다. 이 銘記에 大聖이라 함은 如來佛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말하자면 佛前寶鉢로서 癸丑년에 만들어 받친 것이라는 뜻이 된다. 이러한 樣式의 靑磁바릿대의 例로서는 德壽宮美術館에 所藏된 一式 遺物이 있고 또 筆者가 지난 十月에 發掘調査한 康津 沙堂里 靑瓦窯址의 堆積層에서도 各級크기의 素文靑磁 「바릿대」 과 瓦들이 出土되었으나 이들 遺物은 釉胎의 質과 樣式等 이것과 同斷할 수는 없다.

口徑二四cm—二五cm 高八c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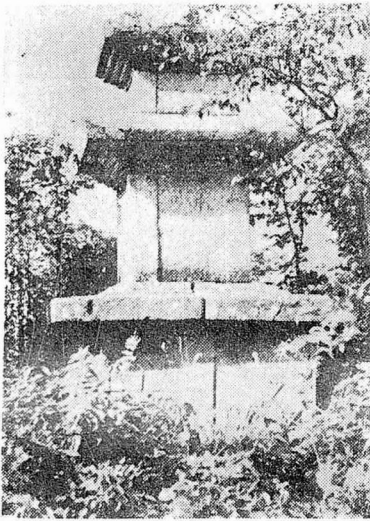
(註) 拙稿…己丑靑磁瓶 參照 考古美術四卷五號

## 靈巖의 石塔 二基

鄭 永 鎬

一、春陽里石塔

全南靈巖邑內에서 約 1km 되는 春陽里 南春洞 밭가운데 石塔一基가 遺存한다. 이 곳은 俗稱 小金剛이라는 月出山 北麓이 되는데 隣近에 많은 瓦片이 散在하며 石塔도 原位置인 것으로 보아 一帶가 寺址로 推定된다. 現在는 二層屋蓋石까지 殘存하였으나(現高約4m) 이에 對한 記錄①이나 洞民들의 말에 依하면 本來는 五層이였었다고 한다. (金喜夫氏 談話(二十二歲) 二層基壇인데 地臺石과 下基甲石까지 一部가 埋沒되었으나 面石中央에 撐柱가 一柱 刻出된 것은 確認되었다. 下甲石上面에는 二段의 받침이 있어 上基를 받고 있으며 上基面石은 中央의 撐柱와 兩隅柱가 整然하다. 上甲石上面에는 二段의 角形과 一段의 물덩받침을 彫出하여 塔身을 받았고 一、二層塔身의 兩隅柱는 整然하다. 屋蓋 받침은 一、二層 四段式이며 落水面은 平薄하여 轉角의 反轉과 잘 어울려서 輕快한 感覺을 주고 있다. 二層屋蓋上에는 下部에 圓孔이 있는 寶珠一石이 보이며 注目되었다. 基壇의 構造나 屋蓋各部의 手法으로 보아 麗初의 優品으로 推定된다. 實測値는(cm) 下基高二〇 一層塔身高七〇 一層身幅八〇 上基高八一 二層塔身高一八 二層身幅六九 一層屋蓋長一四四 二層屋蓋長一一七이다. 附近 밭에 放置된 塔石과 洞里入口에 農協標石(長一四四cm) 4H俱樂部標石(長八五cm)으로서 彩色하여 使用되고 있는 三、四層의 屋蓋石 등을 收拾하여 整理하면 復元이 可能한 바 完全한 石塔



一 基를 再建하는 데 對한 當局의 施策이 期待되는 바이다.  
 二、學松里石塔  
 邑內에서 約 4km, 康津行車道에서 長興으로 갈러 지는 삼거리 淸風院이라 불리우는

洞里的 右便沿道에 現高約4m의 石塔一基가 遺存한다. 이 곳은 月出山東麓인데 石塔位置에서 約 一〇〇m 되는 山腹에는 二段의 石築이 있고 瓦片이 散在하여 寺址②로 推定되나 塔附近에는 아무런 遺址가 없으며 石塔이 原位置인지는 알 수 없다. 現在는 四層이나 이에 對한 記錄에③ 依하면 本來는 五層이였었던 것과 또 이 곳에 「淸風院」이 있었다는 것도 알 수 있는데 지금도 이 곳을 一名 「淸風院」이라 부르는 由來가 짐작이 된다. 洞民의 말에 依하면(吳萬里氏 五〇歲) 이곳 一帶가 寺址로서 幼時에는 庵子가 있었다 한다. 二層基壇으로 地臺石 위에 甲石까지 彫出한 一石下基를 놓고 그 위에 四枚石으로 된 上基面石을 받고 있는데 上, 下層 모두 兩隅柱와 一柱의 撐柱가 거의 線刻에 가깝다. 上甲石은 一石으로 副椽은 없으며 上面에 三段의 받침으로서 塔身을 받고 있다. 各塔身에는 兩隅柱가 彫出되어 있다. 各屋蓋石은 받침이 一、二層은 五段式이고 三、四層은 四段式인데 上面에 圓孔層段은 없이 平坦한 데에 위의 屋身을 받고 있다. 轉角의 反轉과 平薄한 落水面으로 因하여 輕快한 편이나 各屋身의 遞減이 적어서 塔全體로는 不安한 느낌을 준다. 基壇部나 各部樣式으로 보아 年代는 高麗中期로 推定된다. 隣近을 調査하여 缺失된 五層의 身蓋을 찾아 完形의 五層石塔으로 復元하였으면 좋겠다. 實測値는(cm) 下基高二九 上基高六六·五 下基幅一六二 上基幅一三八·五

身高	身幅	隔柱幅	屋蓋長	屋蓋厚
一層 五〇	六一	一四·五	一一一	三五
二層 二六·五	五四·五	一一	九八·五	三〇
三層 二三	五〇	一一	八八	二八
四層 一九·五	四一	一〇·五	七六·五	二五

① 「四角五層、高十四尺」으로서 完全함 (朝鮮寶物古蹟調査資料二二一 頁參照)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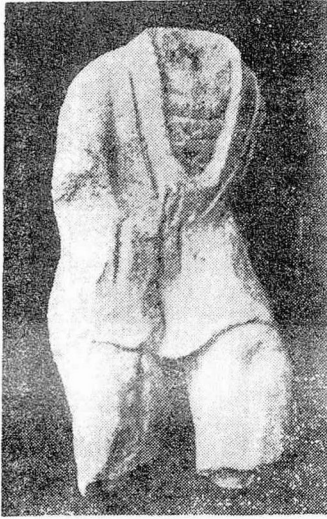
② 現地에는 下層石築高約 3m로 長約 3〇m이며 그 위에 高約 二·五m 長約 二〇m의 石築이 있고 井址가 있다.

③ 「淸風寺址라 稱하며 瓦片과 石筵이 남아 있다. 路上에 一基가 있 으며 花崗岩四角五層塔으로 高三尺 完全한 淸風寺의 入口에 세 워진 것이라 稱한다」(朝鮮寶物古蹟調查資料二一頁參照)。

## 扶餘 臨江寺址 發掘 參加記

申 榮 勳

扶餘로부터 배를 타고 강을 따라 내려가기 시오리(十五里) 長瑕里가 건너보이는 江景가는 길목에 戲魚峽(?)라는 큰 마을이 있다. 이 마을 을 지나 아주 조금만 배를 저으면 百濟때 절이 있었다는 臨江部落(扶餘 郡石城面縣北里)나루터에 도착하게 된다. 지금 이 마을은 李氏때 魏 집 과 金氏내 아랫집뿐이지만 百濟때 盛時에는 交通의 要地로 절과 집이 들 어차 있었을 것이고 高麗나 李朝때에는 지금도 마을에서 부르는 院이라 도 있었음을 추하다. 어쩌면 百濟때에는 임금님의 御駕가 절에 머물기도 하였을 것이고 그를 위한 어떠한 시설이 있었을지도 모른다. 이 마을의 형세는 國師峯을 背景으로하고 龍頭峯과 그 맞은쪽 丘陵이 左右를 가리 병풍 두르듯하였고 앞으로는 탁트인 강변이 展開되어 白馬江流域의 景 觀으로서는 이만한 곳도 쉽지 않을 만한 곳이다. 뒤로는 산이 가리고 앞



으로는 강에 막혀 판 국은 비교적 협소한 편이지만 가만히 살 피보면 그리 만만찬 케 넘어 원터라고 불 리우는 지대와 방터 라고 부르는 지대가 상당한 면적을 갖고 있다. 잘라 말하자

면 커다란 절을 세우기에 충분한 곳이다. 이상과 같은 여건이므로 절을 세우려면 반드시 西南向하여야 되는데 이것도 이 지대가 갖는 특수한 조 건이다. 한가지 조건이 더 있다고 한다면 국면이 협소하므로 산기슭에 바짝 터를 잡아야 되고 삼면의 산이 내놓는 물을 잘 처리하여야 되겠다. 지난 十月二十五일부터 十一月四日까지 東國大博物館主管으로 이 절 터의 發掘調査가 진행되었다. 원터를 중심으로 하되 建物址로 보이는 礎 石에 遺存하는 지역을 중점적으로 調査하였다.

發掘이 進行됨에 따라 建物은 正面五間 側面四間의 法堂이었음이 밝혀 졌다. 땅속에 가만히 있었어야 될 建物基礎의 構造物들은 어느새 人爲 的인 除去와 攪亂으로 混亂되어 大部分체모습을 갖추고 있지 못하나 多 幸히 一部에 原形이 남아 있어 全貌를 살피는데 도움이 되었다.

豫想하였던데로 地下水處理에 設計者가 苦悶하였던 흔적이 보이고 礎 石을 定置함에도 普遍的인 아닌 手法를 使用하였다. 百濟建物遺址의 礎 石配置의 類例가 許多하지 못하여 確言할 수는 없지만 이 臨江寺址의 礎 石은 扶餘地方에서는 唯一한 例라고 하여도 좋겠다. 이러한 礎石이 곧 益山彌勒寺址法堂礎石과 聯關되는지는 여기서 論外할 일이지만 같은 類 形의 새로운 資料가 增施되어 知見을 더하게 되었다는 것만은 밝혀두고 싶다. 위에서 礎石의 樣式이라던가에는 觸手하지 않았는데 이는 建物の 復原值、礎石等 構造의 樣式、使用尺의 確認、建物の 用途 他建物の 關係、出土遺物 등과 더불어 報告書에서 다루어져야 될 것이기 때문이다. 發掘調査는 黃壽永教授指揮下에 東大博의 曹永祿氏 同大學史學科 佛 敎科學生들 그리고 扶餘博의 洪思俊氏와 鄭明鎬、筆者 등에 의하여 진행 되었다.

以上으로 發掘調査中에 느낀것을 所見대로 적어둔다(사진은 現地出土 塑佛)